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하자” 여수시 온힘 쏟는다

경제상황 긴급 점검·대책회의 소상공인·시민 생활안정 지원 총력 수산물 사주기 드라이브 스루 판매 출향인사 등 전국 판촉 홍보도

여수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6개 기관·단체·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경제상황 긴급 점검 및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 업계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대책과 관련, 지역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서둘러 조치하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는 여수 상공회의소·세관·세무서·고용노동지청 등 9개 기관과 3개 금융기관, 소상공인연합회·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 외식·숙박·관광·복지 관련 14개 협회 등 지역 유관기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권오봉 여수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각 기관의 예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각 기관의 소상공인 및 지역민 생활 안정 지원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중점 논의해 시비 매칭과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적극 발굴해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경영난에 빠진 양식어민을 돕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 수산물 사주기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말 완전 개통된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입구 화양면 장수리 도로변 쉼터 주차장에서 여수시 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 함께 할어 모듬회 판매장을 운영 중이다. 판매장은 지난 21~22일, 오는 28~29일 날출간 주말에 차 안에서 직접 주문하고 판매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한다.

모듬회(우럭·송어)와 전복이 2만 원대로 저렴해 인기가 높다. 지난 주말 이틀간 20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지난 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 동안 여수 수산물 사주기 판매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LG화학, 남해수산업연구소, 순천시, 여수해경 등 지역 유관기관과 기업 등이 수산물 사주기에 나서 이날 현재 38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시는 또 택배비 800만원을 우선 지원해 재경향우회 등 여수 출신 출향인사 1400여 명에게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전국 판촉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양식어민을 비롯한 지역민, 소상공인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온힘을 쏟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을 통해민생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권오봉 여수시장 주재로 여수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상황 점검 및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원도심에 무장에 노인복지관 들어선다



여수시 관문동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 예정지.

관문동에 98억원 들여 4층 규모 어르신들 여가활동 공간 조성

여수시는 관문동 원도심에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한 원도심권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이 가능해진다.

여수시는 관문동 일원 부지를 매입해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800㎡ 이상 4층 규모의 친환경·무장애 시설로

건립한다. 지난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이 곳은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고려했을 때 원도심권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됐다. 국민연금공단, 동부보건지소 등 공공시설과 인접해 복지·의료·행정 서비스 연계도 가능하다.

여수시는 지난 1월30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필요성과 시설 현황 등을 공개했다. 앞으로 2차 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주,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상 추진 일정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복지시설 종사자에 연간 10만원 제공

여수시, 맞춤형 복지포인트 도입

여수시는 올해부터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남 최초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수시는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 지역의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 1100여명에게 연 100포인트(10만원 상당)를 제공한다.

종사자들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전화 등 원하는 복지 항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복지수요가 크게 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는 그동안 복지현장 전문가와 전담팀을 구성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여수시는 당초 사회복지사에게만 지급되었던 보수교육비를 올해부터는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등 전체 사회복지 종사자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은 시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퇴직공무원 음악봉사모임 ‘따뜻한 기부’

‘여수 청명동호회’ 버스킹 수익금 전액 기부 ‘화제’



여수지역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청명동호회가 지난해 버스킹 공연으로 얻은 수익금 300여만원 전액을 학교밖 아이들 후원금으로 기부했다.

여수지역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음악봉사모임 ‘여수 청명동호회’가 그동안 버스킹 공연으로 얻은 수익금 전부를 기부해 화제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청명동호회는 지난해 음악 공연으로 얻은 수익금 302만4000원 전액을 지역의 학교밖 아이들이 공부하는 TCS국제학교에 전달했다.

TCS국제학교는 여수에서는 처음으로 창의지성 교육 과정을 도입한 지역의 학교밖 아이들 교육기관이다. 지난 2018년 문을 열어 현재 38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학교는 조만간 오케스트라 창립을 앞두고 있다.

이정주 청명동호회 회장은 “오케스트라를 하려는

이 학교 학생들의 의지에 힘을 보태고 싶다. 건강하게 자라 지역의 큰 인물이 되어달라”면서 “일회성이 아닌 연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11년 창립한 청명동호회는 초등 교장으로 퇴직한 이 회장을 비롯해 교육청, 시청, 경찰, 해양경찰 등 전직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됐다. 해마다 해양공원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으며, 실버요양원 등 복지시설에서도 1년 30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공연으로 모은 성금으로 매년 5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